

시·청각 장애인 문화 향유 기회 도모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영: 배리어프리 버전' 상영작 10편 공개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특별상영: 배리어프리 버전' 상영작 10편을 공개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작품의 시각적 내용을 설명해 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 등 음성 정보를 알려주는 자막을 삽입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다.

20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작품의 상영 증진을 위해 지난해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배리어프리영화제작 사업과 특별상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시·청각 장애인 관객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도모하고, 다양한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상영작 10편을 선정했다. 또한 장

애인 관객의 영화 관람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비장애인에게도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상영: 배리어프리 버전'에는 장편 3편과 단편 7편까지 총 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이 중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작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수상작 4편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단편경쟁 부문 대상에 빛나는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 감독상을 수상한 김현정 감독의 <유령국>,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손태경 감독의 <아웃!>, 특별언급 작품인 이승현 감독의 <오늘의 영화>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제13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단편 영화 제작지원작인 권다솜 감독의 <실금>, 서

정미 감독의 <이씨 가문의 형제들>, 윤재호 감독의 <찌개>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된 신수원 감독의 <오미주>, 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인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김주환 감독의 <명동이>, 선 헤더 감독의 <코다> 수어 통역 영화도 국내 영화제 중 최초로 상영된다. 수어 통역 영화는 2023년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 음향과 음성 등을 해설하는 자막과 함께 스크린 오른쪽에 수어 통역사 2명을 배치해 화자의 대화를 수어로 통역해 주는 형식이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비룡로)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고민시

다재다능함으로 무한의 가능성 보여주는 배우 매력 탐구

6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고민시를 선정했다.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의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고민시를 선정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잠재력 높은 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배우 특집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배우 박정민, 고아성, 안재홍, 전여빈, 변요한을 차례로 선정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만의 특별한 라인업을 구축해 왔다.

'무주산골영화제'의 여섯 번째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된 배우 고민시는 영화 <미녀>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후,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좋아하면 울리는>을 통해 배우 고민시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KBS2 드라마 <오월의 청춘>에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 신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명희' 역을 맡아, 휘몰아치는 감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 대중의 극찬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영화 <밀수>에서 당당함과 유쾌한 매력

의 '고옥분' 역을 완벽히 소화해 내 제32회 부일영화상 여우조연상, 제44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제28회 춘사국제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특별한 연기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고민시 배우는 유쾌하고 톡톡 튀는 매력과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연기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기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배우"라고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 고민시의 출연작을 상영하며 GV(관객과의 대화) 및 스페셜 야외 토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 고민시의 연기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책자(백은하 배우연구소 발간)가 영화제 기간 중 정식 출간되며, 배우가 직접 제작한 셀프 트레일러도 영화제 개막식인 6월 5일(수)에 최초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고민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배우 고민시를 좋아하는 관객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 것이다.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고민시를 선정하며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초여름의 영화 축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달빛 아래 고즈넉한 백제왕궁 '익산 문화유산 야행'

내달 19일 개막... 왕궁 후원 야간 경관 관람 ·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달빛 아래 고즈넉한 백제왕궁의 밤을 거닐며 1400년 전 백제를 느낀다.

익산시는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을 다음 달 19일부터 3일간 백제왕궁인 익산왕궁리유적에서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야행은 '백제왕궁연회'라는 부제로, 지난해 전국 우수 야행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백제 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연회의 자리로 관광객을 초청한다.

지난해 익산시는 △중국어의 교류를 증명하는 오형대포(중국 북주시대 발해동진)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서동생가터의 저온저장시설 △왕도의 증거로 제시되는 익산토성(오금산성) 등 백제 유적 발굴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익산이 가지는 백제 왕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올해 더욱 향상된 모습으로 백제 왕궁 후원을 비롯한 행사장 곳곳에서 수려한 야간경관이 펼쳐진다.

왕의 휴식처로 사용된 후원은 정원의 고즈넉함과 밤을 빛낼 아름다운 경관이 함께해 관광객들은 후원에서 왕궁을 내려다보며 백제 무왕이 된 듯한 운치를 맞볼 수 있다.

아울러, 무왕과 무왕비, 백제인들과 함께 하며 백제의복을 입고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제공돼 백제왕궁에서 살고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시는 익산 문화유산 야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많은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강화하고



익산시는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을 다음 달 19일부터 3일간 백제왕궁인 익산왕궁리유적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2023 익산 문화유산 야행 탐들이 모습)

신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연인·지인 등 다양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5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광활한 백제 왕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만족감을 채워줄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기존 해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백제왕궁 박물관과 연계한 발굴 체험, 가상현실 체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유명 역사 감시와의 만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문제의 개선도 눈에 띈다. '차 없이 오는 야행'으로 진행될 이번 야행은 기존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방문객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 도심권 주요 거점 정류장을 지정하고 버스물량을 확대해 정류장과 행사장을 직통으로 운행한다. 아울러 셔틀버스 이용자 대상 이벤트도 준비해 행사장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 세심한 준비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의 전국적 명성과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2024 익산 문화유산 야행 참여로 가족·연인·지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몽골 헨티 아이막 주-대자이병원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9일 전주 첫마중길 공감차유센터에서 몽골 헨티 아이막 주(주지사 척섬자브), 대자이병원(병원장 이병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치료·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기관 간 문화·관광 교류 및 진료·의료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전북자치도로 유치하고, 현지 박람회 추진 등 전북자치도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19~21일까지 진행되는 팸 투어를 진행한다.

헨티 아이막 주 척섬자브 주지사와 관계자들은 협약체결 이후 대자이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홍삼스파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헨티 아이막 주는 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즈 칸의 고향으로 몽골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가 가장 한류적인 치료·의료관광 지역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